

# '3퇴'와 평안

제 307기 2017년 11월 25일

2017년 11월 21일까지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원:

2억 8,984만 명

## 대만 국부기념관 앞에서 대륙 여행객이 진상을 깨닫다

[명혜망] 2017년 10월 하순의 대만 타이베이시에서는 외곽으로 지나가는 태풍의 영향을 받아 날씨가 고르지 않았지만, 10월 초의 긴 휴가를 이용해 대만에 온 대륙 여행객들이 여전히 한 무리, 한 무리씩 타이베이의 명소를 찾았다. 파룬궁 수련생은 명소마다 파룬궁 전시판을 펼쳐놓고 진상을 알리기를 계속했다.

대만 국부기념관 진상 명소에서는 난징에서 온 중년 관광객이 찬사를 연발했다. “지금 비가 내리는데도 공기가 이렇게 투명해, 그냥 투명해!” 파룬궁 수련생은 최근 중국대륙의 이상기후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이건 신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건데,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늘이 다스립니다! 중공 사당은 중화대지에서 독재 폭정과 무수한 학살을 자행해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겁니다. 선악에 보응이 있는 건 불변의 천리입니다. 구이저우의 장자석도 일찍이 천기를 누설했습니다. 이 전시판을 잘 보세요.” 그 대륙 여행객이 연달아 말했다. “아주 도리가 있어요! 과연 지난 몇 년 동안 대륙 날씨가 아주 이상했어요. 난징도 일년 내내 스모그였잖아요.”

이어서 체격이 좋은 중년 여행객이 파룬궁 진상 전시판을 보더니 수련생에게 대륙 상황을 폭로했다. “(중공) 19대 전에 대륙의 수련생 한 사람당 경찰 여섯 명이 감시를 했는데, 여러분은 해외에 있어서 이렇게 자유로워요.” 그는 자신이 퇴직한 공안 경찰이라 국내 정황을 잘 안다고 말했다. 수련생이 말했다. “그럼 그렇게 여러 해를 보냈으니 당신은 파룬궁 수련생이 좋은 사람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라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네요. 이렇게 잔인한 탄압과 박해를 받았지만, 맞아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무리는 누구일까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말할 수 없고,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합니다.” 수련생은 계속해서 그에게 진상을 알려 준 다음 그래도 중공을 끝까지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3퇴(퇴당, 퇴단, 퇴대)’해서 스스로 평안을 보전



할 것인지 물었다. 또 가명으로 중공 사당의 일체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이것은 하느님에게 고하는 것이니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즉시 대답했다. “좋습니다!” 이후에는 노신사 한 명이 다가와 주동적으로 수련생에게 말했다. “파룬궁, 내가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친한 친구가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수련을 했잖아요. 잡혀 가서 얼마나 끔찍하게 맞았는지! 또 있어요. 애초에 중국대륙에 있을 때 체육관에서 천여 명이나 되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해야 할 때는 곧바로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질서정연했죠.” 수련생이 말했다. “그럼 당신은 파룬궁을 아시는 인연 있는 분이네요. 여기에 와서 저희를 만난 것도 인연이 있어서 함께 하게 된 겁니다.” 수련생은 순조롭게 노신사와 아내의 중공 공청단, 소선대 조직 탈퇴를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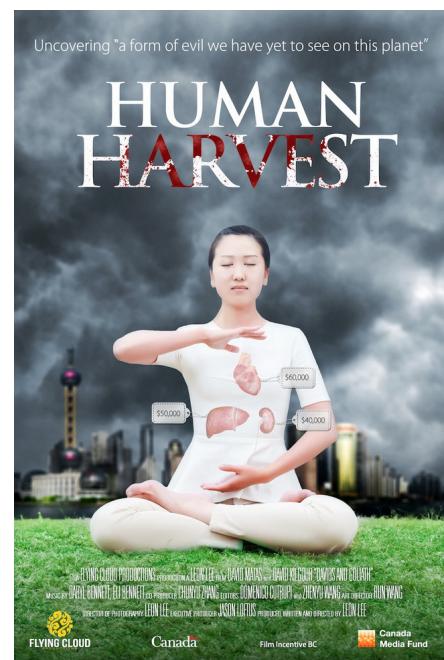
##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생체 적출’ 영화 상영과 토론회 개최

[명혜망] 2017년 11월 9일 저녁, 미국 서부에 위치한 워싱턴 대학 시애틀 분교에서 2014년 피버디상을 수상한 기록영화 ‘생체 적출’ 상영회가 열렸고, 파룬궁 수련생 생체장기적출이라는 하늘에 사무치는 중공의 범죄행위가 폭로되었다. 관객의 대부분은 워싱턴대 학생과 교수들이었다. 영화 상영 후 관객의 반응은 뜨거웠고, 많은 사람이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어 했다. 관객들은 또 어떻게 해야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범죄행위를 빨리 저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워싱턴대 학생 케이트는 상영 후 인터뷰 중에 말했다. “저는 이 기록영화가 반드시 널리 전파돼야 하고, 사람들이 생체 장기적출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바로 감독이 문답 토론 중에 줄곧 제기한 ‘지식이 바로 힘’이라는 말과 같았다. 나는 이 영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당신은 중국대륙에서 정부가 돈을 벌려고 살아있는 무고한 사람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학살한 것을 알고 있나요? 이런 하늘에 닿은 죄악입니다!”

파티우마타 자메흐는 쇼라인 커뮤니티 대학의 2학년 학생이며 국제연구 전공자다. 그녀가 말했다. “영화에서 가장 저를 마음 아프게 하는 건 (생체 적출) 이 일이 한 번, 또 한번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파룬궁 수련생)이 의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산 채로 해부되고 찢어져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 피해자들은 또 범죄자가 아니고, 무고한 데다 파룬궁의 ‘진(眞), 선(善), 인(忍)’을 수련하는, 이렇게 평화로운 일을 했을 뿐인데, 이건 어떤 잘못도 없어요. 중공은 그들을 상대로 하늘에 사무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조금도 뉘우칠 생각이 없어요. 이런 잔인무도하고 믿기 어려운 일이예요. 저는 꼭 이 영화를 친구한테 추천하고, 모든 사람이 오늘 같은 이런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면 결국 중공을 압박해서 폭행을 중지시킬 것이라 믿어요.”



상을 받은 기록영화 ‘생체 적출’의 포스터

해외 메일주소 freeget.ip@gmail.com (제목을 비우지 말 것)로 메일을 보내면 10분 이내에 IP주소 몇 개를 얻을 수 있다. 봉쇄사이트를 돌파하고 밍후이왕 www.minghui.org에 방문하면 더욱 많은 진상을 알 수 있다. 둥타이왕 홈페이지에서 자유문, 무계 등 여러 돌파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나중에 올라가기가 더욱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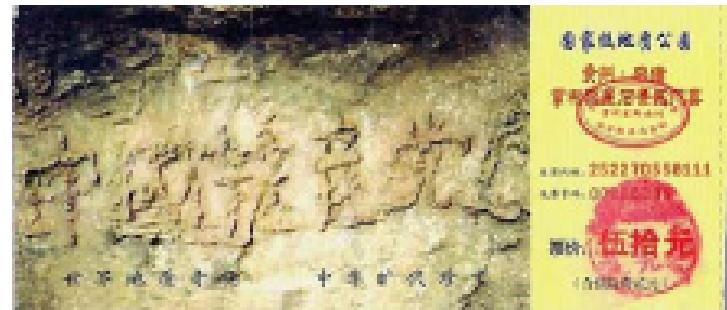
# 퇴직한 사급 군관이 ‘3퇴’ 후 나에게 두 번 경례하다

[대륙 투고] 내가 사는 곳은 관광 도시다. 올해 7월 중순 어느 날, 나는 공원에서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할 것을 권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십여 명이 ‘3퇴’에 동의했다.

한 노인이 내 곁으로 왔을 때 나는 예의 바르게 그를 부른 다음 그에게 물었다. “형님은 올해 몇 살이세요?” 그가 말했다. “나는 올해 80살인데, 집이 근처에 있어서 매일 새벽마다 여기를 한 바퀴 돌면서 운동을 해요.” 그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자기 집이 있는 방향을 가리켰고, 길과 번지수까지 가르쳐 주었다. 그가 사는 곳을 보니 부대에서 퇴직한 고급 간부들이 사는 주택가였고, 모두 부사급 이상이 사는 작은 별장이었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높은 간부니까 틀림없이 입당하셨겠죠?” 그가 말했다. “나는 입당했고 해군에서 일생을 보냈어요. 두 아들도 해군이에요.” 내가 말했다. “저도 오랫동안 당원이었는데, 지금은 (당원이) 아니고, (대기원 탈당 사이트에 성명을 해서) 일찍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형님도 빨리 탈퇴하시죠.” 나는 또 그에게 알려주었다. “입당을 할 때 형님은 (중공을 향해)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과 동시에 ‘수인’이 형님 이마에 찍혔고, (주: 짐승의 도장은 다른 공간에 있는 인체에서 나타난다.) 야수의 수자인데, (장래에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하늘은 이런 사람들만 도태시킬 겁니다. 지금 방법이 하나 있는데, 형님이 하늘을 보면서 저한테 (그 수인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 됩니다. 머리 석자 위에 신령이 있고, 신불은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3퇴’는 (중공을 향한) 독한 맹세를 지울 수 있고 수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 대 겹난이 왔을 때 형님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구이저우에 있는 장자석은 2억 7천만 년 전에 형성된 건데, 대략 5백 년 전에 두 조각으로 분리됐고, 단면에 ‘중국공산당 망(亡)’이라는 글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하늘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선악에 보응이 있는 건 천리입니다. 공산당이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늘이 상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형님은 빨리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하세요. 탈퇴를 안 하면 중공의 순장품이 될 겁니다.” “파룬궁은 불법(佛法)이고, 현재 세계 백여 개 국가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습니다. ‘세계는 진선인을 원한다’는 현수막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장자석’ 단면에 ‘중국공산당망’이란 6개의 큰 글자가 나타나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는 하늘의 뜻을 알려 주고 있다.

이 대만과 홍콩에 공개적으로 걸려 있고, 세계 백여 개 국가에서 모두 파룬궁이 좋다는 걸 알고, 모두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로지 장쩌민 집단만 파룬궁과 파룬궁 제자를 박해하고, 살아 있는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해 팔아 돈을 벌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집권 이후 매 차례 운동으로 중국인 8천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 공산당의 순장품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 손을 들고 생명을 공산당에 바치고 그를 위해 죽을 때까지 분투하겠다는 독한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탈퇴해서 그와의 관계를 끊어야만 평안을 보전할 수 있고, 중공의 순장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형님은 알아들으셨나요?” 그가 말했다. “알아들었어요.” 내가 말했다. “형님이 가입한 그 당이 하늘에 대해서는 조금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형님이 알고 내가 알면 아주 안전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3퇴’에 동의했다. 나는 그에게 ‘고수(高寿)’라는 가명을 지어 주었다. 그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좋아요.”

나는 그와 함께 반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떠날 때가 되어 그는 나를 향해 아주 공손하게 거수경례를 했는데, 아주 감동을 받은 모습이었다. 내가 말했다. “형님 안녕히 가세요! 좋은 사람한테는 좋은 보응이 있습니다!” 그는 또다시 진지하고 엄숙하게 나를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 중공의 사악함을 똑똑히 보고 다시는 속지 말자

[명혜망] 50~60년대에 출생한 중국인은 모두 중공이 일으킨 인민공사 대약진, 자본주의 꼬리 자르기, ‘노동자를 배반한 내부의 반역자’ 류사오치 비판, 문화대혁명을 친양하는 노래 부르기, 린뱌오와 공자 비판 만화 그리기, 무슨 공자는 복위하여 역사에 역행하려 했다는, 지식분자는 더러운 냄새가 나는 아홉 번째, 반란 정당화, 검은 다섯 부류 비판, 덩샤오핑 비판으로 우경 복권 풍조에 반격하기, 1989년 6·4 학생 학살, 1999년 파룬궁 박해 등을 겪었다.

뒤돌아 다시 보면 중공은 문화대혁명의 잘못을 인정했고, 다시는 문화대혁명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했으며, 류사오치 등은 명예를 회복했고, 지식분자가 더는 더러운 냄새가 나는 아홉 번째 놈이 아니게 되었다. ‘복위하여 역사에 역행하려 했다던’ 공자는 성인이 되어 사람들은 인, 의, 예, 지, 신을 좋은 것이라 말한다. 더 이상 자본주의의 꼬리를 자르거나 미 제국주의를 타도하지 않

으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그리고 더 이상 대만인들이 도탄에 빠져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중공에 세뇌당해 장제스가 항일을 하지 않았다고 믿었고, 홍군이 일본을 타도하기 위해 북부 산시로 ‘장정’을 떠났다고 믿었으며, 4천만이 굶어 죽은 ‘3년 대기근’이 천재와 소련의 빛 독촉 때문이라 믿었다. 그러나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은 국민당이 항일의 주축이었고, 홍군이 산시 북부로 간 것은 단지 소련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3년 대기근은 전혀 자연 재해가 아니었고 마오쩌둥의 대약진, 영국과 미국 따라잡기, 세계 혁명 지원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다. 중공은 서양에서 온 유령이며, 코민테른의 제3지부였다. 당 건설 초기에는 바로 하나의 매국 당이었고, 중국 인민을 박해하는 도살자였다. 역대 운동으로 8천만 중국 동포를 살해했고, 중화 전통문화를 철저히 파괴했다. 당시에 불렸던 ‘적의 후

방으로 가지’라는 노래를 생각하면 곧 알 수 있다. 이는 국민당이 전방에서 싸우고 있으니 중공은 적의 후방에서 자신의 힘을 비축하자는 것이며, 중공은 일본이 투항한 후에 내전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했다.

근 백 년이 지나는 동안 한 세대, 한 세대의 중국인은 바로 이렇게 중공에 속아왔고 인생이 꾀이게 되었다. 2004년 말 ‘9평 공산당’이 하늘을 가로질러 세상에 우뚝 솟았다. 그제야 우리는 중공의 사악한 불량배 본성을 똑똑히 보게 되었고, 깨어나기 시작했다. 오직 중공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고, 오직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3퇴’)해야만 그의 정신적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이미 2억 8,900만 중국 민중이 ‘3퇴’함으로써 더는 속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선택했다. 고귀한 중국인이여, 그래도 중공에 기만당하며 지내려 하는가? 빨리 ‘3퇴’하시라. 하늘이 중공을 멸하니 ‘3퇴’하여 자신을 구하자.